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

2025. 1



< 목 차 >

I .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늘봄학교 도입 배경	1
2. 늘봄학교 도입 경과	1
II . 2024년 주요 성과	2
1.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한 늘봄학교	2
2. 늘봄학교에 대한 국민의 더 큰 기대	3
III . 2025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4
IV . 2025년 늘봄학교 주요 추진과제	5
1. 초2까지 집중 지원 대상 확대	5
2. 교육적 질 제고	7
3. 운영 체제 고도화	11
4. 지역 특색 늘봄 모델 확산	13
5. 추진 기반: 온 사회와의 협력 기반	15
V . 추진 일정(안)	16
[붙임1] 늘봄 프로그램 분류 체계 및 우수시간표	
[붙임2] 예비 초1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 요약]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 (도입 배경)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필요
- (늘봄학교 도입)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한 정규 수업 외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인 늘봄학교 도입
 - ※ 핵심 목표: ①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②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 제공
 - ③전담 체제 운영을 통한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
- '24년에는 돌봄 공백에 취약한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전면 도입, '25년 초1~2, '26년 초등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 연차적 확대

② 2024년 주요 성과

- (핵심 성과) ①초1 돌봄 공백 해소(초1 29.6만명 참여), ②온 사회와 협력(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운영), ③국민 만족(학생·학부모 80% 이상 만족)
- (국민이 바라는 점) ^(학생·학부모)정규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육,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제공, ^(교원·업무담당자)전담 인력 확충 및 행정 지원 강화

③ 2025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 ❖ '25년에는 '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른 정책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초2까지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
 -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본격 제공하고,
 - 모든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고도화하여
- ⇒ '26년 정규수업 외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 늘봄학교를 완성하는 기반 마련

< 1. 초2까지 집중 지원 대상 확대 >

- (체제 일원화) '24년에도 일부 유지된 기존 방과후·돌봄 체제를 늘봄학교로 단순화하고, 용어도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정비
 - 초1~2의 늘봄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제공
 - ※ 교육청 자체 브랜드, 용어 사용 시 학생·학부모에 충분히 설명
- (세분화된 수요조사) 단계별 수요조사(기초조사 - 본 조사)를 통해 학생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겨울방학 시작 전부터 충분히 안내

< 2. 교육의 질 제고 >

- (대학·범부처 협업) 지역 대학, 관계 부처가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필요에 맞게 선택·운영
※ 지역 대학: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공급(RISE 연계)
관계 부처: 16개 부처·청별로 프로그램 공급 자체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공급
- (늘봄허브)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매칭 플랫폼인 '늘봄허브' 운영('25.2~)
- (프로그램 체계화) 교육청별 늘봄 프로그램 운영 표준 체계 마련,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제공 확대 등 학년별 지원 확대
- (예체능 특기교육 강화) 정규수업 및 늘봄학교를 통한 예체능 동아리 활동 내실화 및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 (맞춤형 지원) 기초학력 지원 연계 프로그램,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이주배경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저소득층 교육 지원 등 확대

< 3.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

- (학교 안팎의 공간 활용) 학교 내 전용·겸용교실* 공간 확대, 과대·과밀학교 중심으로 지역 돌봄기관·공공기관 등과의 공간 연계 확대
* 겸용교실 활용 확대 시 아동친화적 공간 개선, 교사연구실 구축 필수 추진
- (거점형 늘봄) 거점형 늘봄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고,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하여 거점형 늘봄학교의 운영 특례 마련·적용

< 4. 운영 체제 안정화 >

- (늘봄지원실장) 학교별 늘봄지원실장 배치 유형(1교 전임, 2교 이상 겸임, 미배치)에 맞게 늘봄 업무 전담 체제 마련 및 운영
※ 미배치교는 늘봄지원센터 책임 운영 모델 마련, 거점형 늘봄학교 활성화 등 검토
- (늘봄지원실 역량 강화) 학교별 늘봄실무인력 확충,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 강화, 늘봄지원실 모델 발전 방향 마련
- (늘봄지원센터 지원 강화) 학교의 늘봄학교 업무 전반 및 프로그램 확보, 인력 채용, 회계 처리 등 분야 업무 집중 지원

< 5. 추진 기반 >

- (범부처·지역 협업)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실무 회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늘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 (법적 근거 마련) '25년 늘봄학교 안정화 이후 늘봄학교의 운영 체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늘봄학교 도입 배경

□ 늘봄학교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3년 0.72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초등학생 수는 '24년에만 10만 명이 감소**하는 등 급감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

* '23년 출생 통계, 출생아 수 전년 대비 1.92만 명 감소('24.8월, 통계청)

** '24년 교육기본통계, '23. 260.4만 명 → '24. 249.5만 명(4.2%↓)('24.8월, 교육부)

- 초등 학부모들이 겪는 돌봄 공백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공적 돌봄 확대를 통한 저출생 반전의 계기 마련 필요

- 저출생으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이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지 않도록, 국가가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 필요

- 국민은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교육 지원을 특히 필요로 하고 있어,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개선한 새로운 교육·돌봄 체제 마련 시급

※ 교육개혁 과제 중 국민이 관심 있는 과제 1위('24.11월): 늘봄학교(모든 성별, 전 연령대, 전 지역 1위)

※ 예비 초1 학부모의 71.8%가 늘봄학교를 기대, 90.3%가 늘봄학교 참여 희망('24.12월, 문체부)

□ 늘봄학교의 개념과 특징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①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②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 제공, ③전담 체제 운영을 통한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을 핵심 목표로 추진

2 늘봄학교 도입 경과

- '23년 시범 운영(1학기 214개교, 2학기 459개교)을 거쳐, '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수립('24.2.5.)하여 늘봄학교 추진 로드맵 구체화

- '24년에는 돌봄 공백에 특히 취약한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고, '25년 초1~2, '26년 초등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 연차적 확대

II. 2024년 주요 성과

1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한 늘봄학교

□ 초1 돌봄 공백 해소

- '24년 1학기에는 2,963개교,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초등 6,185교, 특수 178교)에서 희망한 초1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하여, 초1 돌봄 공백 해소
 - '24.12월, 전국의 초1 35.4만명 중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29.6만명 전원 참여(참여율 83.4%, 교육부·시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 각 학교별 늘봄 행정 전담 인력 9,536명 배치, 학교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아동친화적 교실 8,277실 및 교사연구실 4,665실 구축
 - 늘봄학교 참여 초1이 매일 2시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41,409개와 이를 제공할 강사 39,264명 배치

□ 온 사회가 함께한 늘봄학교

- 늘봄학교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24.2.29.~)를 통해 관계 부처 등이 교육자원을 발굴·공유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게 활용
 - ※ '24.2학기 기준 프로그램 582종 및 학교 밖 공간 6,802개 제공,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교육청-공무원연금공단 늘봄학교 자원봉사 협약 체결
- 지자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18건(광역 3건, 기초 15건) 선정('24.12) 등을 통해 늘봄학교를 위한 교육청(학교)-지자체 간 협력 강화

□ 국민이 만족한 늘봄학교

- '24년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1 학생·학부모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만족하였고, 특히 학생의 92.7%는 '25년에도 늘봄학교 참여 희망
 - ※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설문조사 결과(한국교육개발원 '24.12월): 학생 87.4%, 학부모 85.7% 만족
- 지역별 조사에서는 학부모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늘봄학교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이 늘봄학교에 만족한 점 확인
 - * '24.2학기('24.12) 기준, 서울 90.0%, 부산 95.9%, 충남 91.5%, 전북 92.1%, 경북 93.5% 등

2 놀봄학교에 대한 국민의 더 큰 기대

□ 학생·학부모가 놀봄학교에 바라는 점

- '24년 놀봄학교에 참여한 초1 학부모들은, 정규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이 놀봄학교에서 제공되기를 가장 크게 희망
- 학생들도 체육, 문화·예술, 디지털 등, 체험활동 가능 프로그램을 선호
- '25년부터 놀봄학교에 참여하는 예비 초1 학부모들도, 질 높은 프로그램·강사, 체육, 문화·예술, 디지털 분야 프로그램을 희망

❖ 초1 학생·학부모가 '25년 놀봄학교에 바라는 점('24.12월, 한국교육개발원)

- 학부모: ①정규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 확대(44.4%), ②참여 학생에 대한 급·간식 제공(22.3%), ③아동친화적 공간 개선(13.5%) 등
- 학생(개설 희망 프로그램): ①체육(25.1%), ②문화·예술(23.1%), ③디지털(16.5%) 등

❖ 놀봄학교에 관한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인식조사('24.12월, 문화체육관광부)

- 놀봄학교에 바라는 점(중복 답변 가능): ①질 높은 프로그램과 강사(69.1%), ②안전하고 편안한 공간(63.5%), ③프로그램 다양화(58.2%)
- 놀봄학교 프로그램 선호: ①체육(44.8%), ②문화예술(20.1%), ③창의 과학(13.9%) 등

⇒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 필요

□ 교원 및 업무담당자가 놀봄학교에 바라는 점

- '24년 놀봄학교 업무 참여 교원('24년에는 과도기적으로 교원이 기존 놀봄 업무 인수인계 등에 참여)의 71.5%는 행정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응답
- 반면, 교원 및 업무담당자(놀봄실무인력, 놀봄전담사 등)들은 여전히 전담 인력 확충과 놀봄지원센터의 지원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점도 확인

❖ 교원, 업무담당자가 놀봄학교에 바라는 점('24.12월, 한국교육개발원)

- 교원: ①전담인력 확충 및 교원 행정 업무 경감(21.3%), ②놀봄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18.0%), ③지속적 예산 지원(12.1%) 등
- 업무담당자: ①전담인력 확충 및 교원 행정 업무 경감(20.7%), ②놀봄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17.0%), ③지속적 예산 지원(16.1%) 등

⇒ 놀봄지원실 등 놀봄학교 운영 체제의 정착 및 발전 필요

❖ '25년에는 '24년 놀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른 정책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 놀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초2까지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
 -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본격 제공하고,
 - 모든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놀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안정화하여,
- ⇒ '26년 정규수업 외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 놀봄학교를 완성하는 기반 마련

Ⅲ. 2025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비전]

정규수업 외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의 늘봄학교

[목표]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질 높은 종합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



주요 추진과제

[초2까지 집중 지원 대상 확대]

- 늘봄학교 체제 일원화
- 세분화된 수요조사 및 안내

[교육의 질 제고]

- 대학·범부처 협업 프로그램
- 늘봄허브 중심의 프로그램 생태계
- 체계적 교육 운영
- 맞춤형 교육 지원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
- 거점형 늘봄 모델 고도화

[운영 체제 안정화]

- 늘봄지원실 체제 완성
-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

추진 기반

[온 사회와의 협력 체계]

- 범부처·지자체 협력
- 법적 근거 마련

IV. 2025년 늘봄학교 주요 추진과제

1 초2까지 집중 지원 대상 확대

□ 늘봄학교 체제 일원화

❖ **국민의 기대** “늘봄, 돌봄, 방과후.. 용어가 다소 헷갈립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 (체제 일원화) '24년에도 일부 유지된 기존 방과후·돌봄 체제를 늘봄학교 체제로 단순화하고,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용어 정비하여 국민 이해 제고

9시	<p>[아침늘봄]</p> <p>- 정규수업 전 1시간 내외, 학교에 머무르면서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제공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p>
(정규수업)	
13시	<p>[오후늘봄]</p> <p>- 정규수업 직후부터 오후 시간(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17~19시 내외)까지, 학교에 머무르면서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형태로 희망하는 시간까지 제공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p>
17~19시	<p>[맞춤형 프로그램(초1~2)]</p> <p>- 초1~2에게 매일 2시간(또는 2차시) 무상으로 기본 제공</p> <p>- 학생의 성장·발달에 맞게 학습과 놀이, 적응 등이 결합된 형태</p>
	<p>[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초1~6)]</p> <p>- 정규수업 외 추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p> <p>-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교과, 특기적성 등 교육 제공</p>
	<p>[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초1~6)]</p> <p>- 정규수업 외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p> <p>- 늘봄교실 등 공간에서 보호, 자율활동 등의 돌봄 제공</p>
	<p>[저녁늘봄]</p> <p>- 오후늘봄 이후 최장 20시까지, 학교에 머무르면서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제공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p>

※ 교육청이 늘봄학교 공통 용어 외에도 자체 브랜드나 용어를 병행 활용하는 경우, 학생·학부모의 늘봄학교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통 용어와 충분히 비교 설명

- (오후늘봄) 초1~2 모두에게 희망하는 형태로 희망 시간까지 '오후늘봄'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은 희망자에게 기본 제공

* '초1~2 대상 매일 2시간 무상으로 기본 제공'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맞춤형 프로그램

- 선택형 교육·돌봄 프로그램에 초1~2는 원하는 형태로 참여를 보장하고, 초3~6에게는 기존 방과후·돌봄 수준 이상 참여를 지원
- 학교는 참여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공간을 확보하고, 학교 공간에 비해 수요가 많은 경우에도 학교 안팎을 모두 활용하여 최대한 수요대로 참여 보장

※ 예시: 선택형 돌봄 희망자 전원의 참여를 보장하되, 학교별 상황에 맞게 이용 시간이 긴 학생, 저학년 등이 학교 안 늘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그 외 학생은 겸용교실 학교 밖 공간으로 분산

- 각 학교에 인력·공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인력 충원, 공간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고, 학교별 늘봄학교 운영 예산도 충분히 편성
 - ※ 인력: 늘봄실무인력 1교 1명 '이상' 배치, 자원봉사자 모집 등
 - 공간: 전용교실 증축(모듈러 포함), 겸용교실 공간 개선 및 교사연구실 확보 등
- 오후늘봄 중 간식(유·무상)은 학교 여건에 맞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간 형평성, 배식 인력 확보, 안전·위생 관리에 유의
 - ※ **충북** 희망하는 학교에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제공 예산 편성(학교별로 간식업체 등 선정)
- (아침·저녁·방학늘봄) 정규수업 전 '아침늘봄'과 오후 시간 이후 (최장 20시까지) '저녁늘봄'을 학교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제공
 - 오후늘봄에 준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 교육청별 특색 사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학교 안팎 활용), 저녁늘봄 참여자에게는 석식 제공
 - ※ **부산** 아침 체인지(體仁智), **인천** 아침이 행복한 학교, **울산** 프로그램형/돌봄형 아침늘봄, **전북** 저녁(18~20시)에는 학교 밖 공간 활용 늘봄 프로그램 제공
 - 방학 중에도 중단없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되,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형태와 시간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
 - * 맞춤형 프로그램 기본 제공, 선택형 교육·돌봄 프로그램 최대한 제공
 - ※ **부산** 거점형 늘봄서머·윈터스쿨 운영(09~20시) 및 참여 학생 전원에게 급식 제공
 - 광주** 돌봄 참여 학생에게 도시락 제공 **세종** 희망 학생에게 급식 또는 도시락 무상 지원

□ 세분화된 수요조사 및 안내

-
- ❖ **국민의 기대** "학기 시작 전에 늘봄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미리 안내받으면 이용하기도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
- (체계적 조사) 기초 조사(대략적 수요), 본 조사(프로그램별 수요)를 통해 재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24.11~)
 - ※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의 참여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전부터 실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강사, 공간 등 세부 계획(시간표) 마련하고, 늘봄학교 운영 개시 전 안내(~'25.2)
 - (예비 초1 안내) 예비 초1에게도 늘봄학교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예비소집일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수요 충분히 반영('25.1~)
 - * '25년 취학통지 시 안내문 배포('24.12.2.~20.), 유치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안내('24.11.29.)

2 교육의 질 제고

□ 대학·범부처 협업 프로그램 제공

❖ **국민의 기대** "사교육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질 높고 교육적 효과가 큰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 (프로그램 협업 체계) 지역 대학, 관계 부처 등이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각 학교는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 선택·운영
 - ※ 각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매주, 한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학교와 기관의 여건에 맞게 학교 밖 프로그램, 단기 특강 프로그램 등도 함께 활용
 - 교육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늘봄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학교 매칭 지원
 - * (내용)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고 학생·학부모가 흥미 유발 가능 (운영 방식) 매주 안정적으로 강의 제공 가능 (비용) 학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강사료 책정 등
- (지역 대학 협업)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의 학생·학부모 및 학교가 희망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 지역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요의 약 10% 내외를 공급
 - 모든 지자체가 RISE 기본교부액 내에서 자체 공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체 계획이 우수한 5개 내외 지역에 추가 사업비* 지원
 - * '25년 사업비 총 21,241백만원, 지역별 2,000~5,000백만원 내외 배분
- (범부처 협업) 16개 부·처·청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협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연중 총 76종의 프로그램을 전국 약 4,300개 학급에 보급
 - ※ '25년 사업비 총 10,800백만원(교육부 500백만원, 16개 부·처·청 합계 10,300백만원)
 - 각 부·처·청이 관할하는 지역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강사도 양성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지원
 - ※ 지역(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100~500개 내외의 학급을 고르게 지원하고, 전국 단위 공급 프로그램도 충분히 확보하여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추가 지원 추진
- (교육청 자체 협업) 각 교육청은 교육부 지원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도 대학(지역 내·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늘봄 프로그램 보급 사업 등 운영
 - ※ **충남** 방학 중 대학연계 늘봄캠프를 운영하여 문화·예술·체육·AI 등 프로그램 제공
 - 전북**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기술원 등 지역기관 농촌체험 프로그램 매칭
 - 전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유 교육시설 연계 주말 늘봄 프로그램 운영

- (사각지대 해소) 기관별 공급 계획 수립 전에도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발굴된 프로그램* 매칭 지원('24.12~)

* 지역 대학, 관계 부처, 민간기관, 교육기부 단체 제공 프로그램 등 약 400종

- 농·산·어촌 등 프로그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지역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관을 중점 발굴·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 4개 권역(수도·강원, 충청, 전라·제주, 경상)별로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매칭 - 운영비 집행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단 구성·운영(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5년 20,400백만원)

□ 늘봄허브 중심의 프로그램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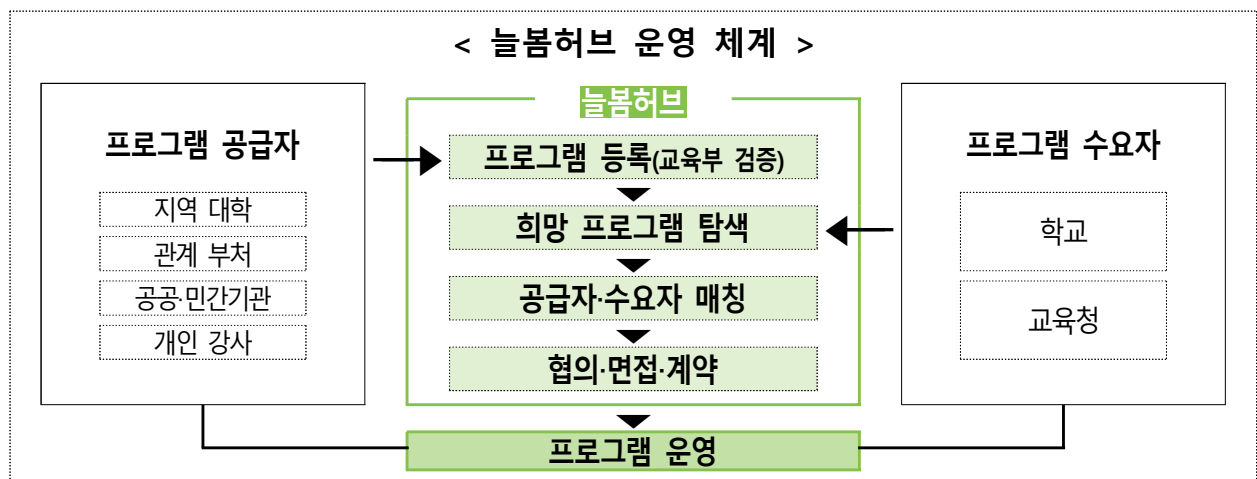
- ❖ **국민의 기대** "우수한 늘봄 프로그램 강사들이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얻게 되면 프로그램의 질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 (매칭 체계) 희망하는 개인·기관 누구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는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활용하는 상시 매칭 플랫폼인 '늘봄허브' 운영('25.2~)

- 각 교육청은 자체 보유 프로그램(강사)풀을 탑재하거나, 자체 매칭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늘봄허브 활용 가능

※ **대구** 기존의 '강사지원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늘봄허브와 프로그램·강사 정보 연동

충북 기존의 '외부강사 심사지원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늘봄허브와 프로그램·강사 정보 연동



- (강사 연수) 늘봄 프로그램 강사들이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25.1~)

※ 구성: ▲(기초과정) 교수법, 프로그램 설계·운영법 등 ▲(심화과정) 분야별 전문 역량 강화
규모: '25년 연수기관 4개 지정('24.11, 권역별 교대 등), 4,800명 대상(겨울방학 중 집중 지원)

- 강사의 연수 이수 이력을 늘봄허브 프로그램 등록 시 기재하고, 교육청별 강사풀 구성에도 활용하여 연수 결과의 활용도 제고

□ 늘봄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 **국민의 기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늘봄 프로그램의 수준도 높아지려면 학년별 커리큘럼(curriculum)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프로그램 표준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면서 교육적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교육청별 프로그램 편성 기준 마련
 - ※ **부산** 부산 늘봄학교 교육과정(프로그램 표준안, 한글·수학·영어 과목 학습자료 등)
 - 세종** 자람교실, 프로그램 활동자료(초등 저학년 활동 내용 및 활동자료 등)
- 교육청별 직속 교육·연구기관을 통해 정규수업과 늘봄학교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학년별 특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부산**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의 공간·인력(강사)을 활용한 기초코딩교육 운영(양정초)
 - 경북** 경북교육청과학원·문화원이 함께 정규수업-늘봄학교 연결 체험활동 운영
- (학년별 지원) 지역 대학,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고학년 수준에 맞는 신산업 분야, 진로·적성 탐색, 특색 교과 프로그램 충분히 개발·보급
 - ※ **대구** 초4~6 대상 정규수업 연계 ‘코딩드론’ 늘봄 프로그램 운영(도림초)
 - 경기** 초6 대상 ‘햄스터봇활용코딩’(천일초), AI코스웨어 활용 블록 코딩(신평초) 등
-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아-초등 저학년 연계 프로그램 자율 운영(병설유치원 등 중심)
 - ※ **광주** 유·초1~2 이주배경학생 대상 놀이를 통한 학습지원, 간식 제공 등(하남중앙초)

□ 예체능 특기 교육 지원 강화

❖ **국민의 기대** “늘봄학교에서 아이가 즐기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 문화·예술 등 분야의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정규수업 연계) 정규수업 내 예체능 교육활동, 예체능 동아리 활동을 늘봄학교에서도 연계 운영하여 예체능 특기 교육 지원 강화
 - ※ 체육: 초등 학교스포츠클럽 ('23) 103,887개 운영 → ('25) 105,000개 운영(예정)
 - 예술: 초등 오케스트라 운영 ('23) 598교 → ('24) 751교 → ('25) 800교(예정)
- 교육청별 특색 체육·예술교육 지원 사업*,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 대학(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확보
 - * **서울** 다시 뛰는 아침 **부산** 아침 체인지(體仁智), **경기** 등곳길 아침운동 **전북** 아침운동 신명나깨
- (지역사회 연계) 학교가 예체능 강사·공간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체육단체(늘봄허브 활용), 지역 문화·체육시설*과의 협력 강화
 - *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연계 시설 발굴 추진('24년 문화시설 715개, 체육시설 156개 발굴)

□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 **국민의 기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려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 (학력 격차 해소) 정규수업 이후 추가 교과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 제공
 - ※ 기초학력 프로그램(AIT) 활용 등을 늘봄학교에서 운영 기초학력 특화 늘봄 프로그램 개설 등 여건에 맞게 추진
 - ※ **서울** 초1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 프로그램 운영
- 학교·교육청의 예산 등 여건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유상 또는 무상)의 형태로 운영
- (장애학생 지원*) 학생의 장애 특성,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장애유형별 교재·교구 제공**, 늘봄지원인력*** 배치 등 지원
 - * 늘봄학교 장애학생 맞춤 지원 계획 등 수립하여 추진(교육청별 특수교육 담당 부서)
 - ** 보조공학기기·촉각·음성지원 교재·교구 구비, 무장애 환경 구성 등
 - *** 보조강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학생(예비교사), 시간제 인력, 자원봉사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을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25년 1,500여명)
-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어울려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 및 늘봄지원인력 장애 이해 역량강화 연수 추진
 - ※ **충북** 장애에 따른 교육적 특성, 활동 구성 시 유의사항, 통합 활동 지원 등 컨설팅(초등학교 대상)
 - 전북**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 학교 적응 늘봄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늘봄 자원 발굴
 - ※ **서울** 지역사회 교육자원(복지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학생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언어·기초 학습 등) 집중 제공*, 외국어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이해 제고
 - * 교육청별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과 연계
 - ※ **경기** 고려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평택), **충북** 3개 언어권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경남**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로 늘봄학교 안내자료 제작
- (저소득층 등 지원) 초1~2 외에도 모든 학생이 늘봄학교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연 60~80만원) 지원 확대
 - ※ 학교장 추천비율을 확대(20% 이상)하여 학교별 지원 대상, 사용처(교재교구비, 간식비 등) 적극 발굴
 - ※ **제주** 자유수강권을 활용하여 돌봄 프로그램 급간식, 소규모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무상 지원

3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 활용

❖ **국민의 기대** “늘봄학교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공간이 모두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 내 공간) 학교별로 늘봄학교 전용교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규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실·일반교실 겸용 확대

*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늘봄 프로그램 교실', 돌봄 프로그램 중심의 '늘봄교실'로 구분

- 겸용교실 활용을 확대하려는 경우, ①겸용교실 공간 아동친화적 개선, ②겸용교실 활용 중 교사가 머무를 교사연구실 공간 확보 필수 추진

- 학교별 늘봄학교 공간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방학 기간 중심으로 공사를 실행(계획 마련:~'25.2 / 공사 실행: '25년 여름·겨울방학 중)

※ **서울**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을 통해 학교 전체 공간 개선과 연계하여 늘봄학교 공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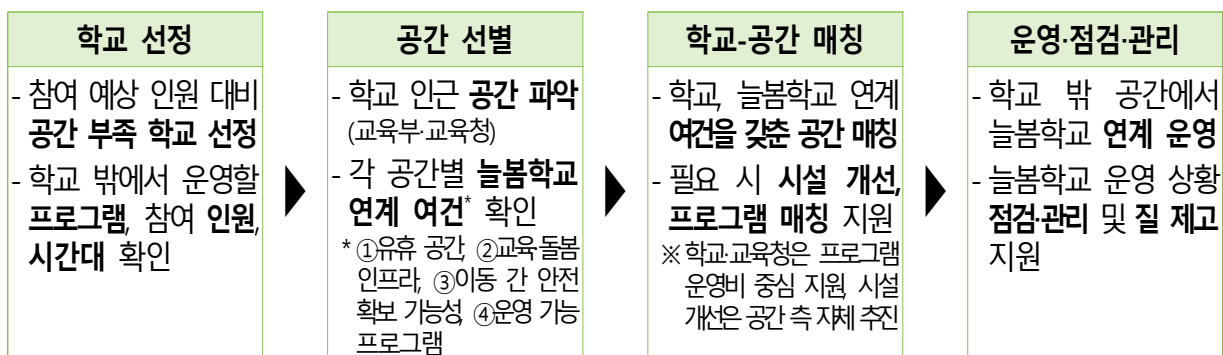
○ (학교 밖 공간)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의 돌봄기관, 공공기관 등과 공간 연계 활용

※ 유치원·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지역공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내 유휴 공간(강의실, 체육시설 등) 등

※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온(溫)마을 다(多)봄터), **세종** 복합커뮤니티센터 연계(마을방과후), **충남** 인근 아파트 연계(동네방네 늘봄교실), **경북**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연계(굿센스)

- 과대·과밀학교 등,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이 함께 학교 밖 공간 매칭을 집중 지원('25.1~2)

< 학교 밖 공간 매칭 집중 지원 체계 운영(안) >



○ (기타) 지자체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 시 교육청·학교가 프로그램 매칭 등 지원

□ 거점형 늘봄학교 모델 고도화

❖ **국민의 기대** “여러 학교의 교육자원과 역량을 모으면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델 다양화) 각 교육청이 여건에 맞게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의 늘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 정립

<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 다양화(안) >

- (개념) 여러 학교의 늘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마련한 공간 또는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의 공간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델
※ 늘봄학교 기본 모델: 각 학교가 인력·공간·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교육·돌봄 제공
- ①학교별 늘봄 참여 수요가 커 **학교 자체 자원(공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거나** ②학교별 늘봄 참여 수요가 적어 **학교별로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운영
- (유형) (공간)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 안**’ 또는, ‘**학교 밖 별도 공간**’에서, (운영 주체)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지자체 협력 방식으로 운영
- (운영 사례)
 - **부산** 명지늘봄전용학교(강서구 명지지구 학교 밖 공간, 교육청 직영)
 - **강원**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화천군 화천초 내, 군청 직영(교육지원청 협력))
 - **경남**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명서’(창원시 명서초 내, 교육지원청 직영)

- KB금융그룹의 지원금(특별교부금 지원 포함) 외에 교육청별 자체 투자 등도 확대하여 거점형 늘봄학교 구축·운영 확대(‘25년 33개소 구축)

※ **경기** KB 지원금, 교육청 자체 재원 매칭 투자를 통해 ‘부천 상원 꿈나래 늘봄거점센터’ 구축
제주 KB 지원금을 통해 거점통합돌봄센터 ‘꿈낭’을 구축하고 교육청·지자체가 함께 운영

- (특례 마련)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상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 마련

< 거점형 늘봄학교 관련 특례(안) >

구분	기본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중 특례
교직원 지도·감독 시설 안전 관리 학생 안전대책 마련 민원처리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학교장이 수행	교육감이 대신 수행 가능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교장이 운영	교육감(장)이 대신 운영 가능
안전사고 보상	학교장이 늘봄 운영 중에만 가능	교육감(장)이 늘봄 운영 중에도 가능

- (가칭)「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 시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에 특례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체 학교로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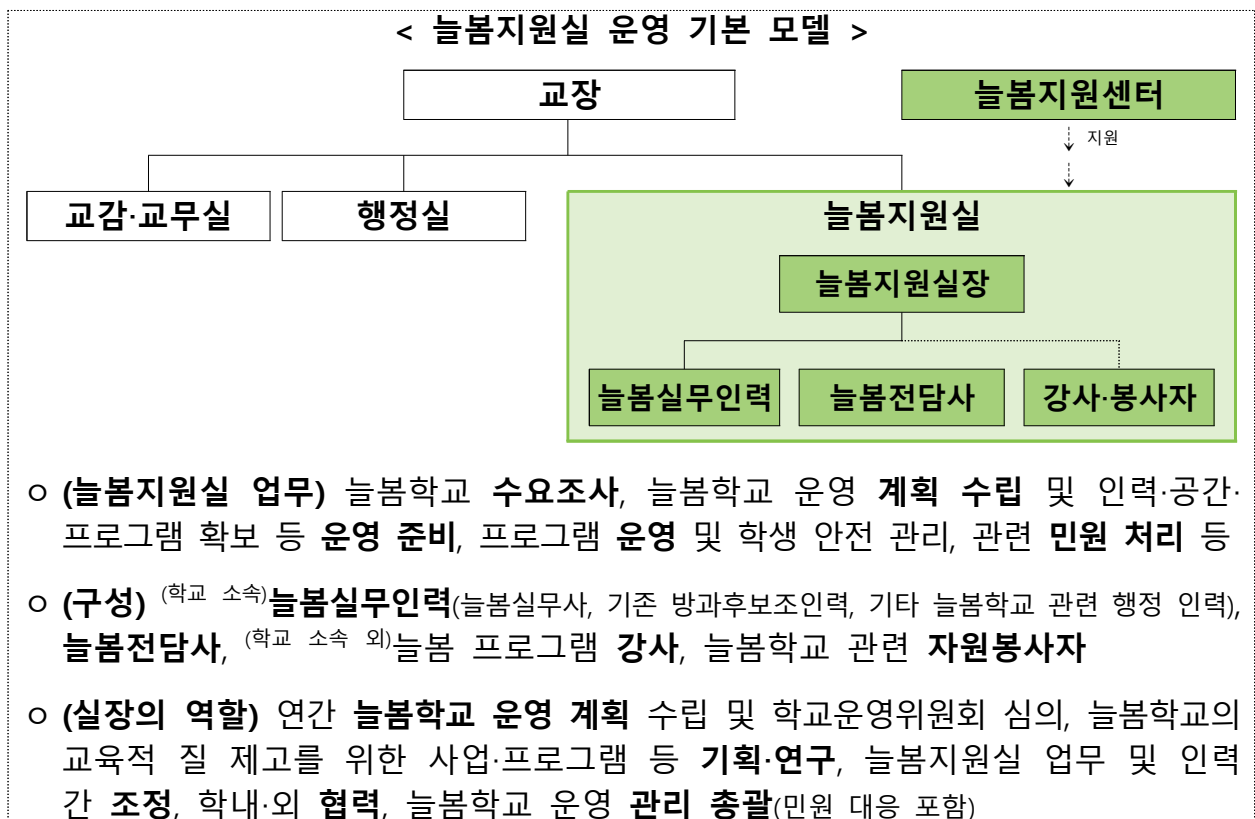
3 운영 체제 안정화

□ 늘봄지원실 체제 안정화

- ❖ **국민의 기대** "늘봄학교가 종합 교육 운영 체제로서 자리 잡으려면 이에 걸맞은 전문적인 업무 전담 체제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 (늘봄지원실장 중심 체제) 각 학교별로 '25년 늘봄지원실장('25년 1,500여명) 배치 형태*를 고려하여 늘봄학교 업무 체제 정비('25.3~)

* ①1교 전임(큰 학교 등) ②2교 이상 겸임(중·소규모 학교 등) ③미배치(소규모 학교)로 구분



- 1교 전임: 기본 모델에 따라 늘봄지원실장이 교감·교무실, 행정실과 독립적으로 학교의 늘봄학교 관련 업무 총괄 추진

- 2교 이상 겸임: 기본 모델에 따라 운영하되, 늘봄지원실장 외에도 업무를 중간 검토할 인력*을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지정 가능

* 예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직원(필요 시 학교 겸임 가능)

- 미배치: 늘봄지원센터 책임 운영 모델 마련, 늘봄지원실장 배치교 중심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늘봄실무인력 중심 운영 등 교육청별 대책 마련

※ **경기** 늘봄지원실장 겸임 최소화(1~3교) 및 미배치교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 **경남** 거점형 늘봄센터에 늘봄지원실장 배치

- **(늘봄실무인력 확충)** 큰 학교(1,000명 이상 등)에 추가 인력 배치, 처우 개선 연계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늘봄실무인력 확충('25.1~)
 - ※ **강원** 기존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사 직종을 통합한 '늘봄학교전담사' 직종 신설
 - 늘봄지원실장의 2년 분산 배치와 연계하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1,080명)를 과도기적으로 늘봄학교 전담 인력으로 활용(수업시수 최소화)
 - ※ 원활한 '25.1학기 운영 준비를 위하여 2월까지 신규 늘봄실무인력 배치 및 기간제교사 채용 완료
- **(늘봄지원실 역량 강화)** 늘봄지원실장·늘봄실무인력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연초·연중 지속 운영하여 늘봄지원실의 전문성 강화('24.12~)
 - 사례 연구 중심의 (가칭)'늘봄지원실 모델 운영 방안' 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제도의 발전 방향 검토(연중, 늘봄지원실 구성원 중 참여자 모집)
-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 교육청별로 '26년 늘봄지원실장(1,000여명) 선발 및 '27년 학교별 배치를 통해 늘봄지원실 모델 완성('25.9~)
 - ※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전국 2,500여명 이상)는 제도 운영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검토

□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

❖ **국민의 기대**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행정 업무를 많이 지원해주면, 학교는 늘봄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 제고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전반 지원)** 늘봄지원센터의 직원별 전담 학교를 지정하여, 늘봄지원센터가 학교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전 과정 지원
 - ※ **부산** 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를 통해 늘봄학교를 포함한 학교 행정 총괄 지원
 - ※ **대전 전북** 교육청 늘봄지원센터 직원별 담당교 지정 및 지원
 - 특히, 늘봄지원실장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늘봄지원센터 직원의 학교 점검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행정 지원 체계 구축
- **(분야별 지원)** 학교 직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프로그램 확보, 인력 채용, 회계(사업비 등) 처리 등 분야의 업무 집중 지원
 - ※ **대구** 교육청 '강사선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프로그램 매칭, 강사 채용 업무 대행
 - ※ **제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늘봄 프로그램 강사 채용, 인력 선정·배치 지원
- **(늘봄지원센터 역량 강화)** 늘봄지원센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필요 시, 학교 늘봄실무인력을 재배치)하고, 센터 직원 대상 업무 연수 내실있게 운영

5 추진 기반: 온 사회와의 협력 체계

□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 (운영 체계 개편)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 주요 계기*별 정례 회의 개최 방식으로 전환(종전: 월간)
* 1학기(3월), 여름방학(6월), 2학기(9월), 겨울방학(12월) 운영 개시 시기 등
- 정례 회의 전 조정 회의, 규제 개선 등 쟁점별 수시 회의 등 실무 회의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청 간 늘봄 실무 협업 체계 강화
※ 수시 회의는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주재 실무자급 회의로 개최
- (의제 확대) 교육부의 요청 사항 외에도 교육청·지자체의 건의 사항, 관계 부·처·청의 프로그램 연계 제안 등 의제 확대 검토

□ 지역 늘봄 협업 체계 활성화

- (지역늘봄협의체 구성·운영) 전체 지자체·교육청에서 광역늘봄 협의체 및 기초늘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행안부, 복지부, 지자체 협업)
- 지역늘봄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기존 돌봄협의체를 중복·대체 운영 중인 지자체는 단계적으로 지역늘봄협의체로 일원화 추진
※ '24.12 기준 11개 시·도에서 늘봄협의체 구성 완료, 6개 지자체에서 구성 추진 중
- 지역 내 늘봄학교-돌봄기관 간 연계·협력, 지역 늘봄 프로그램 공급 계획 등 현안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 시 다른 지역 구성원도 참여
※ **대구** 교육청-시청-지역대학-공공도서관-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는 '대구 늘봄학교 추진단' 운영
- (범부처 지원본부 연계) 지역 밖 교육자원 연계, 전국 단위 규제 개선 등 필요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안전으로 상정·논의

□ 늘봄학교 법적 근거 마련

- (추진 방향) 늘봄학교 운영 체계,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 국가·지자체 책무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추진 시기) 늘봄학교가 2학년까지 확대되어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인 '25년 하반기 중 발의 및 제정 추진

V. 추진 일정(안)

□ 교육청별 세부 계획 수립 및 1학기 운영 준비('25.1~2)

- '25년 늘봄학교 실행방안, '25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세부 계획 수립·발표(즉시)
- '늘봄허브' 개통 및 개별 프로그램 매칭 개시('25.2)

□ 1학기(여름방학) 늘봄학교 운영('25.1학기 개학일~)

- 학교별 1학기 늘봄학교 운영('25.3.4.~)
- '25년 늘봄지원실장 학교별 근무 개시('25.3~)
- 학교별 여름방학 늘봄학교 운영('25.여름방학 기간)

□ 2학기(겨울방학) 늘봄학교 운영('25.2학기 개학일~)

- 학교별 2학기 늘봄학교 운영('25.2학기 개학일~)
- '26년 늘봄지원실장 교육청별 선발('25.9~)
- '25년 늘봄학교 운영 성과 점검 및 만족도 조사('25.11~12)
- 학교별 겨울방학 늘봄학교 운영('25.겨울방학 기간)

붙임 1

놀이 프로그램 분류 체계 및 시간표 예시

□ 놀이 프로그램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내용
1. 체육	신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체육(달리기, 스트레칭), 줄넘기 키즈 댄스, 키즈 요가, 리듬체조 기초, 어린이 치어리딩 등
	구기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구 놀이, 농구 기본기, 탁구 놀이, 배드민턴 기초 등
2. 문화/예술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그리기, 예술 작품 따라하기, 미술가 이야기 듣기 비즈 공예, 종이접기와 공작, 클레이로 작품 만들기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요 배우기, 어린이 작곡 따라하기, 어린이 합창단 기초 악기 연주 배우기, 전통 악기 체험, 오케스트라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 역할극 놀이, 어린이 연극, 인형극 놀이 어린이 뮤지컬, 무용 공연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문화 체험, 예절 교육, 민속놀이 체험(제기차기, 윷놀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음식 알아보기, 세계 도시 알아보기
3. 인문/사회	문학·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책 다시 읽기, 전래 동화 이야기, 동화 명작 독후감 쓰기 짧은 동시 쓰기,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위인들 알아보기 주요 테마별 역사 알아보기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지역 알아보기, 사회 규칙 이해하기(교통 안전, 학교 등)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 다양한 분야의 진로 체험·교육 등
4. 창의/과학	과학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기초 교육, 간단한 실험 놀이, 생활 속 과학 이야기 별자리 배우기, 우리 몸 배우기
	디지털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미디어 교육 어린이 코딩 놀이, 디지털 에듀테크 체험
	기술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 조립 놀이, 발명 교육 어린이 공학 교육, 공학 KIT 제작 하기
5. 기후/환경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환경과 생태계 이해하기, 우리 주위의 동물과 곤충 이야기 에너지 교육(에너지 활용, 절약), 환경 보호 교육(재활용)
	생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별 우리 주변의 모습 관찰하기, 우리동네 숲 체험하기 도시 텃밭 가꾸기, 농촌 체험, 자기 식물 키우기
6. 학교적응 / 정서	사회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와 협동 활동하기, 보드 게임, 함께 퍼즐 맞추기
	정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으로 마음 표현하기, 어린이 스피치 교육
	생활 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적응과 공부 습관 배우기 식사 예절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배우기
7. 교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노래 배우기, 상황에 맞는 생활 외국어 알아보기 수학 놀이, 수학 퍼즐,
8. 기타		

□ 시간표 예시 ①(경북 〇〇초)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늘봄	만들기, 그리기	보드게임	책놀이	블록놀이	놀이체육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오후 늘봄	①	맞춤형 (정규수업)	맞춤형 과학실험 독서논술 바이올린 피아노	(정규수업)	(정규수업)
	②	맞춤형	과학실험 독서논술 바이올린 피아노	맞춤형	맞춤형
	③	선택형 교육 선택형 돌봄	선택형 교육 선택형 돌봄	로봇과학 오케스트라	과학실험
	④	주산암산 컴퓨터 피아노	주산암산 배드민턴 컴퓨터 피아노	영어 한자 미술 수학 축구	놀이 체육 퍼즐 놀이
	⑤	십자수 키링 만들기	뉴스포츠 요리	영어 한자 미술 수학 축구	놀이 체육 퍼즐 놀이
저녁늘봄	블록놀이 등	만들기, 그리기	뉴스포츠 등	독후활동 등	놀이 체육 등

□ 시간표 예시 ②(충남 〇〇초)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늘봄	독서활동	독서활동	독서활동	독서활동	독서활동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오후 늘봄	①	맞춤형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맞춤형
	②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코딩 창의미술 농장체험
	③	선택형 교육+돌봄	피아노 바이올린	방송댄스	선택형 교육+돌봄
	④	체육놀이 문해력 블록놀이 등	창의수학 그림책놀이	체육놀이	기초학습 생태교육 인성교육 동요한글
	⑤			그림책놀이 기초학습	
저녁늘봄	오카리나/칼림바 기초학습	요가	오카리나/칼림바 기초학습	요가	동요합창

※ 그 외 늘봄학교 운영 우수사례는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

❖ 조사 개요

- (목적) '25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희망을 파악해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전국의 '25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24년 만 6세) 학부모 1,200여명
※ '24.10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전국 지역별 비례 할당 표본조사
- (조사 기간/방법) '24.11.29. ~ 12.10. / 온라인 조사
- (조사자) 문화체육관광부, Kstat컨설팅

□ 조사결과(요약)

- (늘봄학교 인지도) 응답자의 96.6%가 늘봄학교에 대해 알고 있음
※ 잘 알고 들어봤음 16.3%, 대체로 알고 들어봤음 37.9%, 들어는 봤음 42.4%
- (참여 희망) 응답자의 90.3%가 '25년 늘봄학교 참여 희망
 - 응답자의 9.7%가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①학교에 너무 오래두는 것 같아서 37.6%, ②집에서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29.4% 순
※ 늘봄학교 외 이용하는 돌봄 장소: 가정(부모) 61.5%, 사설학원 25.6% 순
- (프로그램 선호도) ①체육 44.8%, ②문화예술 20.1%, ③창의과학 13.9% 순

구분		체육	문화예술	창의과학	교과	학교적응정서	인문사회	기후환경
1순위	응답률	44.8%	20.1%	13.9%	7.5%	7.2%	5.4%	1.0%
	순위	1	2	3	4	5	6	7
1+2순위	응답률	55.6%	50.3%	35.3%	18.6%	20.1%	16.5%	3.6%
	순위	1	2	3	5	4	6	7

- (운영 희망 시간) (오후늘봄)참여 희망자의 91.4%가 13~15시 참여 희망, 60.3%가 15~17시 참여 희망(복수 응답 가능)
 - (아침·저녁늘봄)참여 희망자의 18.8%가 아침늘봄(07~09시), 11.7%가 저녁늘봄(17~20시) 참여 희망
- (늘봄학교에 바라는 점) ①더 질 높은 프로그램과 강사 69.1%, ②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63.5%, ③프로그램 다양화 58.2% 순